

# Contents



## issue

기획특집	반성폭력 운동의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들	
	- 피해자 지원, 제도의 안과 밖에서	2
	- 여성부 '여성폭력시설' 평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4
	- 서울행정시스템과 정보인권	5



## info. in common

쟁점과 입장	- 공소시효 현소 기각, 그러나 끝나지 않은	8
	- 성폭력범죄의 양형기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10



## survivor's voices

상담실에서	2008년 상담통계	12
생존자 말하기	水的 이야기 - 연재 12th 수능전야 2	14
	말하기로 가해자를 고발하다 - 연재 4th(마지막회)	20
열린터 생각	열린터 다이어리	22
	마음가는대로	23



## edutainment

몸이야기	연재3/3 - 마음과 혼의 통전과 치유	24
만나고 싶었습니다	'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 감독 조세영	26
소모임 생각	마르지, 달려! - '페르세 폴리스'를 읽고	29



## report & membership

원대상담소	원대상담소	30
사업 review	3대 소장 퇴임 인사	32
	제 18차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34
들고나기	들고(두나,마도,고미라) / 나기(사자,이산,아름)	34
회원소식	소모임 소식 / 후원 소식	

# 피해생존자 지원, 제도의 안과 밖에서

◎ 본 상담소 사무국장 김만혜정



“상담소가 왜 이리 작아요?”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소에 들어선 분들은 묻는다. 주택가 안쪽에 자리잡은 벽돌 집, 외관상 무슨 무슨 지원센터의 모양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이라 놀랐다는 평이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꾸며진 상담실에 자리를 잡고 상담소 소개 안내지를 건네드리면 곧 “아, 상담소는 국가기관이 아니었군요” 고개를 끄덕인다. “상담료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도 많다. 모든 상담과 사건지원은 무상이라고 답변드리며 상담소 운영은 기본적으로 월 정기회원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는데, 이러한 상담소에 대한 관심은 상담지원이 지속되면서 더해가는 경우가 많다. 상담실 주변에 걸린 달빛시위며 생존자말하기 대회, 자기방어훈련 캠프 포스터를 주의 깊게 보며 이런 캠페인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월 정기 후원인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다른 피해생존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내담자로 시작하여 점차 다양한 위치와 정체성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운동에 함께하게 되는 감동적인 현장이라 할까.

상담소는 이렇게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상담지원을 지난 18년 동안 반성폭력 운동단체로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NGO로서 해오고 있다. 반성폭력 운동단체로서의 상담소는 그동안 연간 3,000여회 안팎의 상담 지원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연구하고,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회적인 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언, 모니터링, 입법과 법개정 운동을 한다. 현재 전국에는 NGO

인 성폭력상담소 200여개가 운영중이다.

상담지원을 통해 상담소, 반성폭력 운동단체들은 성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인 대책, 문화적인 변화를 촉구해왔다. 그 결과로 성폭력을 처벌하고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1994년 제정되었고 피해생존자에 대한 의료지원, 법률구조 서비스가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중이다.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 상담을 하는 상담소에 2~3인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운영비 6,0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상담소 중 80여 곳만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며 우리 상담소와 같이 10명 이상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자체 후원금과 기금마련을 통하지 않으면 운영될 수 없는 구조다.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상담지원이 전반적인 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 진정한 의미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영역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연구, 교육, 캠페인, 정책 제언의 활동은 성폭력상담소의 핵심적인 활동임에도 사실상 국가의 지원 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마련을 요구한 결과로 정책의 입안, 재원 마련, 지원체계의 관리 책임을 맡게 된 관련 부처는 최근 많은 문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새울행정시스템과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상담지원 현황에 대해 효율적으로 통계처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현장상담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이에 여성부는 중앙서버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통계시스템, 이듬하여 새울행정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내담자의 많은 신상 정보를 요구하고 정보 입력자인 개별 상담원의 아이디어를 구청 담당자가 관리하는 방식의 이 전국 전산망 시스템은 정보인권, 보안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수차례의 문제제기 끝에 새울행정시스템은 보류하고 국가복지정보시스템만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우리가 제기한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전국 많은 상담소에서는 지자체의 압력을 받아 이미 시행중이기도 하여 이것이 전국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는 이가 많다.

구청의 ‘지도점검’도 고질적인 문제다. 지도점검은 구청 관리 담당 공무원이 전권을 행사하며 상담소의 제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적, 점검할 수 있는 절차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상호 이해나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하여 매번 갈등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상담소 운영 업무와 인력 관리의 제반 내용을 공무원법에 준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여, 상담소가 열악한 상황에서 보완해온 활동가 복귀후생 체계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별칭을 사용하는 문화까지 이 지도점검 앞에서는 일소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시정하지 않는다면 경고조치 되는데, 지적사항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제기했던 2년 전의 지도점검에서 상담소는 결국 1회 경고를 받았다. 특히 그해는 우리 상담소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해이기도 해 아 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담당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와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몰이해는 거론하기도 힘든 기본 구도로 이미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적인 흐름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은 어떠할까. 여성인권 분야에서 현장에서의 필요를 민감하게 조사하고 내실있는 지원체계를 연구, 개선해야 할 여성부는 성폭력 상담소들의 목소리를 점차 배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작년 말 전국 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협의체의 가을워크숍에 인사차 방문한 여성부 담당 행

정관은 “우리의 손발이신 여러분”이라고 좌증을 호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성부가 상담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하나의 예에 불과했다. 현장단체들의 문제제기로부터 정책의 개선 방향을 찾거나 거버넌스를 통한 내실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도모하기 보다는 시끄러운 NGO 단체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현황이다. 성폭력 상담업무의 직영화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다. 여성부는 전국 3군데였던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추가 개설하였는데, 이에 대한 운영주체를 ‘병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 센터의 상근소장이 비상근 의료인으로 무리하게 교체되기도 하였다. 그나마 비의료 영역 출신이 센터장을 맡았던 기존 방식에서 더 한정하여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의 전문성, 파트너십을 의료기관으로 정리한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성폭력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문제화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성폭력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 초점화함으로써 피해생존자를 지나치게 병리화하여 ‘치료’한다는 그간의 우려에도 역시 귀 기울이지 않은 결론이다. ‘여성인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내다보고 사회의 변화를 계획해가는 정부부처가 맞나 싶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보이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NGO에 대한 대대적인 배제 흐름을 보았을 때, 대안은 어디에서 생겨날까? 하는 우려가 든다. 무조건적인 재갈 물리기는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행정 지배의 욕망을 극단화한 모습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은 정부의 정치적인 입장과 관계없이 사회적인 안전망의 하나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원도 비정치적, 탈정치적일 수 없다는 것을 요즘의 흐름은 느끼게 한다. 정부의 성폭력 지원 정책이 피해생존자를 조용한 시혜자로 만들고 반성폭력 운동단체를 행정 서비스의 수족으로 만들고자 할 때, 우리 상담소는 무엇이 형식적 탁상 복직이고 무엇이 변화를 일으키는 ‘함께 가는’ 움직임일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에게 ‘조용한’ 성폭력 꺼내 말하기란 없었으니 말이다. ☹

## 여성부 ‘여성폭력시설’ 평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사회복지사회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근거법률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정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의 목적성이 잘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설치신고를 한 성폭력상담소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시설평가를 받게 된다. 여성폭력 시설평가는 여성부가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해서 2004년에 처음 실시했고, 그 당시에는 3년 이상 시설 운영을 한 상담소가 대상이었으며 2007년에는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대부분이 평가를 받았다.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근거로 시설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평가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동의하고 타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든다.

정부(여성부)와 평가기관(보사연)은 시설평가의 목적을 “시설운영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평가를 받는 시설의 현재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라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 상담소는 2007년에 처음으로 시설평가를 받았고, 그 경험을 통해 평가항목과 지표의 문제점, 평가위원들의 위계적인 태도와 불편함, 평가점수의 서열화,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불투명성 등에 대해 여성부와 보사연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2007년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시설운영과 관리뿐만 아니라 인권활동, 상담소장의 소양과 비전제시, 종사자(활동가)만족도 등까지 포함되었다. 평가항목과 지표를 이렇게 폭넓게 제시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평가기관과 평가위원들의 평가항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해석도 일관되어야 하며 평가지표의 객관적 기

준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평가기관이나 평가위원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과 그 역사성, 활동에 대한 이해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제시된 평가항목과 지표 기준에 ‘딱’ 맞추어진 목록과 서류만 잔뜩 복사해서 평가기관과 평가위원들 앞에 둔다고 해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평가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우리 상담소의 경우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고려가 없는 평가위원들과 평가항목 등을 보며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가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테면 2004년과 2007년 평가지표 중 면접상담 실시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에서 방문상담 실시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인상담소의 경우에는 상담의 특성상 방문상담의 빈도수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와 같이 평가내용은 상담소의 현재상황이나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을 드러내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가 밝힌 시설평가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내년에 실시될 시설평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개별상담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시설평가의 목적, 지표개발, 평가방식, 평가결과의 활용방식, 평가위원 선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위원 선정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단체(시설)는 상하·위계관계가 아니며, 단체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나 활동가들이 하급직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으로 여성들이 좀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운동하는 활동가이며 단체이다.

정부 시설평가가 ‘평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운동의 상상력과 자율성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수평적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는 없을지 되묻고 싶다. ☹

##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보인권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언제 어디서나  
유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행정분야 역시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행정 서비스가  
점차 대면 서비스에서 원격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시대인 것이다.  
그런데 원격 행정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개인정보’이다.

### 원격 행정의 등장

공공 서비스가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닿 수 있는 지리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을 당시엔 신분을 속이는 것이 힘들었다. 담당자가 얼굴과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의 지리적 범위가 넓어지고 신원확인도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을 흉내내는 정체성 절도(ID-theft)의 여지 역시 늘어났다. 따라서 민원 서비스의 원격화가 진행되면서 신원확인에 대한 강박이 함께 증가해 왔다. 본인임을 묻고 사진을 대조했던 정도에서 이제는 신체정보를 낱낱이 제공해야 하는 수준까지 온 것이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문을 날인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생활의 편리함을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관에 이 정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또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온라인 제공과 유통은 피치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다. 이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제공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그 권리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의 편리함에 묻혀, 혹은 행정 효율화 논리에 밀려 자신의 원칙적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혹 우리는 컴퓨터에서 요구하는대로 아무 생각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 정보인권의 문제의식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데 있어 한 가지 매우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자정부 사업의 제 1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이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에 대하여 폐기하라고 권고하자 큰 논란이 일어났다. 당국은 결국 과오를 인정하고 시스템을 재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어떤 점을 인권침해라고 보았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 시스템의 가장 우선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수집의 정당성’이다. 기본권 제한을 법률로써만 허용하고 있는 헌법과 OECD나 UN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감안했을 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 뿐이다. 여기서 해당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막연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당시 NEIS는 “학교에서 수집한 학생관련 개인정보를 16개 시·도 교육청 서버에 집적관리”하겠다고 하면서 그 법적 근거는 불분명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개인정보 보관과 이용은 애초의 수집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무제한적인 복제가 가능하고 유출도 손쉬운 전자적 방식의 개인정보 보관보다는 손으로 꼼꼼히 기록한 한 벌의 수기 보관이 더욱 안전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보다 해당 기관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안전성이 높음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안전성은 “해킹을 막는다”는 의미에서의 기술적 보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을 통제하여 애초 약속한 목적 내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수집 목적에 비추어 수기기록, 전자기록, 온라인으로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정도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학생·학부모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여 중앙정부에 네트워크로 전송·집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순수한 교육행정만을 위한 정보 외에 교육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행정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교무·학사, 보건 영역 등에 입력되는 정보는 한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성장기록에 관한 것으로, 한 곳 또는 소수의



몇 군데에 집적되어 처리된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보건, 성적, 체벌 등 개인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거론했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현행 법률로도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라고 되어 있다.(제6조 차별 금지의 원칙)

### 새울행정시스템의 문제

새울행정시스템에서도 이상의 정보인권 원칙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울행정시스템이 수집, 처리하는 각각의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이 법률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지, 각각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관과 이용이 법률적으로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현재 새울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상담과 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그 수집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상담과 복지 관련 업무들은 그 내담자의 개인정보, 상담내용, 종사자 개인정보 등이 만약 유출될 경우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 및 감독 기관 내외에서 적절한 수준과 범위로 개인정보의 취급이 제한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전송 및 이용은 최소화되거나 금지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완벽하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할 수 있으며 얼굴을 보이지 않는 온라인에서는 그것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곧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 또한 당사자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 원칙은 지켜져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담과 복지 시설 업무의 집중적인 전산화와 중앙의 관리 강화는 필연적으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기술적 환경이 확대될수록 이에 대한 원칙과 인권의식이 절실하다. 그런데 정보인권을 보호해야 할 중앙 정부가 이에 대한 침해 논란으로 민간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무엇보다 여성 복지 분야는 성폭력 핫라인 상담과 거버넌스 확대 등의 차원에서 민간과 공조하고 일정부분 그에 의존해왔다. 정부가 정보화를 매개로 민간단체의 활동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겠다고 나선다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 참가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중단 등을 내세우며 민간단체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새울행정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 시스템 논란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

**편집자주** 현장 상담소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질의에 대하여 여성부는 새울행정시스템 사용 중단을 행안부와 협의중이며, 업무 효율성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정보집적행위는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담보하지 못하며, 현장 활동의 자율성과 회계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현장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응답이다.



# 공소시효 헌소 기각, 그러나 끝나지 않은

나눔터 info. in common

● 본 상담소 전(前) 활동가 자주

2008년 12월 26일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발표되었다. 2006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공소시효 지난 피해자들을 모아 5명의 원고인단과 함께 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만 2년만에야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 수사과정 상의 범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에 대한 주요 요지였다. 비록 위헌법률심청이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2년여 동안 기다린 결과치고는 너무 허무한 결과이자 이유가 아닐 수 없었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은 2006년이였다. 당시 전화와 이메일 상담을 병행하던 상담소에는 오래전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상담이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법적으로 구제를 받고자 해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법적 처벌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시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약 10%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었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수치라 할 수 없다. 또한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거나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친고죄 조항의 고소기간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없는, 숨겨져 있는 사례까지 생각하면 성폭력 범죄의 '시간'의 문제는 몇몇 사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의 핵심적인 문제를 함의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성폭력 범죄가 여타의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들이 바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겪을 공포와 당황감은 다른 범죄와 다르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겪은 것이 성폭력 피해인지 아닌지 자기 검열의 과정, 이것을 주변과 수사 기관에 이야기할 때의 두려움, 믿어주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함, 그리고 주변에 알려질 경우 겪어야 할 수치감과 비난까지 많은 것을 감당할 준비와 결심이 서지 않고서는 고소란 쉬운 선택지가 아니다. 게다가 성폭력 피해의 70%가 아는 사람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묵인할 것인지, 개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등 '관계'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공소시효가 지난 상담사례를 분석해보면, 고소를 할 수 없었던 이유들은 앞에 나열했던 이유들과 다르지 않다. 특히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사례는 전체 성폭력에 비해 어린 시절에 입은 피해 사례가 절대적이고 가해자가 대부분 아는 사람, 그 중에서도 친족인 경우가 70%가 넘는다는 사실을 보면 왜 공소시효가 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 피해자의 경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성폭력이라고 인지하기 보다는 '불쾌한 장난',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쉬우며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가해자의 협박, 또는 굳이 협박이 아니더라도 '웬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쉽다. 또한 용기를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별일 아니라는 반응으로 덮어두고자 한다거나 심지어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가 입을 다물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가해자가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하는 보호자의 위치라면 그만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가족의 화목을 방해했다는 도덕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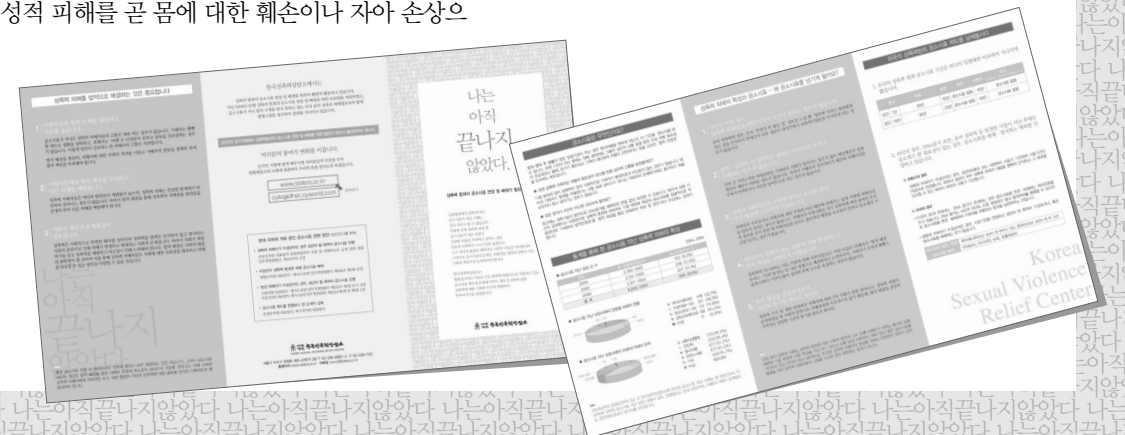
성인이 되기 전에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외국의 공소시효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례들 대부분이 아동성폭력과 친족성폭력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정확히 인지하고(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친족성폭력) 스스로 법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로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형사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소시효 제도에 있어서 성폭력만 예외적으로 '특별히'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원칙을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며 이와 같은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성폭력을 침묵하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공소시효 제도의 개선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례들이 항변하는 공통은 단지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데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었다. 고소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이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잘못된 시선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하고픈 기본적인 발화의 욕구마저 상실하도록 하며 이는 법적 권리 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차단한다. 성에 대한 터부와 여성의 성적 피해를 곧 몸에 대한 훼손이나 자아 손상으

로 인식하는 문화는 이를 내면화한 피해자에서, 주변인에서,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작동한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답은 바로 그 과정 안에 담겨 있다. 피해자가 강요된 침묵의 벽을 깨고 나오는 순간, 주변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는 순간, 수사기관이 편견 없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순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발견하게 된다. 상담사례를 통해 공소시효의 문제를 짚었던 것은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뿐 아니라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내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만능의 법체계가 아닌, 법체계 안에서 포섭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모든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렵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늦었지만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발화되기를 바랬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 발표가 있던 날, 헌법재판소를 나오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되뇌었다. 상담을 통해 만났던 피해자들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법원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너무도 간단히 '끝'이라고 선언해버린 것은 아닐지. 들리지 않아도 피해자들의 침묵에 귀 기울일 수는 없었는가? ☹



정리/인정 / 공소시효 / 양형/준



# 성폭력범죄의 양형기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본 상담소 소장 이윤상

여러분은 재판부가 선고하는 범죄의 처벌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실형을 받고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는 건, 형벌이 너무 가볍다던가, 다른 경우와 비교했을 때 형량이 너무 많거나 적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사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곳이 맞나,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판사들의 판단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법적 구제절차를 선택한 생존자를 만나고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 상담소 활동가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분노도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피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피해의 무게에 맞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법적 구제의 핵심일진데, 어처구니없는 감형이유들이 잔뜩 나열된 판결문을 받아들이고 나면, 뒷 하리 열심히 법정투쟁을 했나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지난 1년 반 동안 위원회는 우리나라 양형기준 모형을 선택하고, 작년 11월에 있었던 공청회에서는 뇌물죄, 성범죄, 살인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지난 2월에는 배임횡령죄, 위증·무고죄, 강도죄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형기준을 우선 마련하기로 한 6가지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

청회가 마무리 되었고, 이제는 양형기준을 확정짓고 이를 실무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폭력범죄는 가해자에게 온정적 태도를 취하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범죄를 유발한 책임을 묻는 기형적인 특징을 갖는 유일한 범죄입니다. 우리 상담소가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온 지가 벌써 18년째이지요. 그동안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도 과거에 비해 무척 다양하고 활발해졌습니다. 이런 성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지요. 그런데도 성폭력범죄가 갖는 기형적인 특징은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판결문 몇 개만 살펴봐도 우리사회의 왜곡된 통념이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감형이유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이 가해자가 '욕정에 못 이겨' 범죄를 유발적으로 일으켰다는 이유로 감형 사유가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도, 피해자를 물색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끌고 가 강간하여도, 가해행위를 은폐하고자 핸드폰 기록을 삭제하려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하여도<sup>1)</sup>, 의도되고 계획된 행위는 온데간데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이 벌어졌으므로 잘못에 대한 책임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언론에 보도되어 세간에 익히 알려져 있는 모 국회의원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2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감형사유 중에 여러 명

이 있는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도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거론되었습니다. 우선 돌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도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심지어 술을 마셨으므로 우발적 범죄라고 보았으면서) 여러 명이 있다고 고의성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죠. 더욱 문제인 것은 호의적 성적 행동과 폭력적 성적 행동이 서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일상화' 된 폭력적 문화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사고해야 할 재판부가, 폭력이 이미 고도의 고의성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일상화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으니,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워집니다.

얼마 전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성이 8년간 친지 4명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질병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는 기사를 읽고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지요. 사실, 상담소에서 성폭력 사건을 접하다 보면 '나이가 많아서', '공로가 커서', '초범이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서' 등, 어이없는 집행유예의 사유는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성폭력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되기는 하였지만, 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도 사회의 편견이 바뀌지 않으면 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편견과 통념이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이므로, 양형기준과 같은 잣대를 통해 편견과 통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상담소에서는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하거나 서면 의견서를 내는 등 다양한 통로를 이용하여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열심히 개진하였



습니다. 음주가 감경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마구잡이 집행유예를 막기 위해서 고려배제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 합의와 공약에 대한 의견에 이르기까지 양형기준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이나 편견 때문에 힘들게 고소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도 그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게 되면, 피해는 계속 은폐되고 왜곡되기 쉽습니다. 결국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의 잘못된 운영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양형기준은 합리적인 처벌정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 우리 사회의 통념과 싸운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통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우리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양형기준이 여전히 음주-욕정-우발성의 악순환 고리에서 성폭력은 가해자의 책임보다는 남성의 욕정을 건드린 피해자를 문제 삼는 방식에서 헤맨다면, 모든 이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오랜 활동이 바람직한 결실을 볼 날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

\*이 글은 본인이 작성한 공청회 토론문 "기준의 객관성-통념과 편견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어찌할 것인가?"(2008.11.24)와 여성신문에 기고 하였던 "성폭력 범죄 '양형 기준' 바로 서야"(2008.10.16)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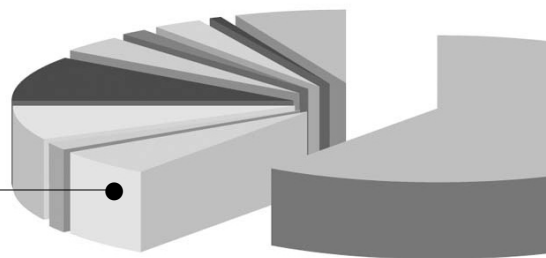
1) 이상 사례는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2008)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한 성폭력 범죄 양형인자(이경환)', '성폭력 범죄의 바람직한 양형 기준-통념과 편견을 넘어서(이윤상)'에 인용된 사례입니다.

# 2008년 상담통계

◎ 여성주의 상담팀 이어진

최근 연일 터져나오는 운동사회 내 성폭력,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강간치사 사건을 보면서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발생 및 대처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사건, 다리촬영 무죄판결 건,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등과 같은 사건이 있었지요. 언론에 집중 보도된 성폭력사건 뿐만이 아니라 본 상담소에 접수된 다양한 일상의 성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폭력의 발생은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08년 상담을 통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상담현황은 상담소 홈페이지(<http://www.sisters.or.kr>)의 상담통계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성 폭 력 상 담 의 동 향



2008년 상담통계

### 무고죄, 명예훼손과 같은 가해자측 역고소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담 사례에서 피해자가 무고, 명예훼손의 가해자로 역고소되는 사례가 10건 내외로 꾸준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의 의미로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비해 2008년에는 검사가 무고죄로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도 2건을 차지했다. 보통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무고죄의 경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벌금형의 경우 벌금이 높고,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벌금형의 경우 피해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재판출석 및 형 가중에 대한 불안감으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검찰단계에서 사건 담당검사에게 '무고죄'로 인지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자의 '진실'은 입증받기가 어렵다. 특히 성폭력사건의 경우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고소로 고소동기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무고죄는 '내심의 범죄'로 '어떠한 의도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가'가 판결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의 잣대가 철저하게 조사관들의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통념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피해자의 성력, 직업, 행실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경찰·검찰·재판부의 인식개선과 실제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2008년 상담통계

### 가해자측 합의종용' 2차피해 심각, 친고죄 폐지되어야

스토킹 피해가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고소 이후 가해자측의 위협으로부터 시달리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조명되었다. 스톱킹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우 고소 이후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고 직장생활과 같은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전화, 메일, 우편, 문자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가해자측이 선처 및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기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고, 집과 회사로 찾아와 애걸하고, 매일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합의종용의 2차가해에 대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합의종용과 같은 괴롭힘에 대해 민사소송,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재판을 위한 시간과 비용 및 합의종용 중지와 같은 효과성의 측면에서 볼 때 실익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해자가 집앞에 찾아와서 애걸하고 호소하는 등의 행위는 '가해자의 성의, 반성을 위한 노력'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 지속적인 가해자의 합의종용은 2차가해로 피해자의 회복을 막는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것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및 법조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친고죄 폐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인 이유는 '성폭력피해자의 명예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이지만 현실에서는 합의종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주거지노출, 사회활동 방해 등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권침해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8년 상담통계

### 모르는 사람에 의한 단회 피해가 아닌, 아는 사람에 의한 지속피해가 더 많아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력관련 사건은 자극적이고 잔인하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인 것처럼 묘사된다. 따라서 주 피해자인 여성 일반은 밤길을 조심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는 성폭력발생 예방 팁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1991년부터 2008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의 성폭력발생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볼 때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80%를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1>과 같이 2008년 상담통계 중 피해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회 발생한 일시적 피해는 45.7%이며 이를 제외한 54.3%는 1개월부터 3년 이상의 다수회이면서 높은 지속율을 보이고 있다. 본 상담소는 이와 같은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사회에 뿌리깊은 남성중심적이고 성차별적 사회문화 및 통념에 근거하여, 가까운 관계에서 권력관계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 및 개선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성폭력의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의 활동의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생존자 말하기

[편집자주] 생존자의 목소리 꼭지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투고로 채워지며, 연재 혹은 단회로 독자 여러분과 만남을 갖습니다. 글 보내주시길 ksvrc@chol.com 입니다. 이번 호에는 '水'의 연재수기 열두 번째 이야기와 '진'님의 사연이 지난 호에 이어 실렸습니다.

연재 12th

survivor's voices

## 수능전야 2

◎ 水

내 몸은 긴장하고 숨털들까지 모조리 곤추었다. 열쇠가 꽂히고, 손잡이가 돌아갔다. 문이 열리고, 밝은 복도의 불빛을 등에 진 그 사람이 검은 비닐봉투에 무언가를 들고 왔다. 나는 아까 맞던 자리에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고,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그 순간은 숨도 멈추고 있어야 했다. 성폭력을 당하는 것도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오늘처럼 맞은 날은 맞는 것만 생각해도 오줌이 나오고, 정신이 나갈 정도였다. 맞다가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는 순간들, 신경을 잘못 건드렸는지 전기가 찌릿하게 오는 때, 급소를 맞았는지 숨이 순간 멈추는 시간들은 눈물도 나지 않는다. 견디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는 것도 기술적으로 맞아야 했다. 내 인생 아주 어릴 적부터 온 몸이 기억하는 장면들이 있다. 요강을 씻어다 놓지 않았다고, 내 배에 타고 앉아 요강의 오줌을 먹이던 친할머니,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조그만 수수빋자루 뒷꿈무니를 내 입에 틀어막고 부지깥이로 온 몸을 때리던, 그래서 입술 곳곳에 잔잔한 가시가 박혔던 날의 기억. 또 한 번은 맞다 치쳐 마루 밑으로 숨어든 나를 기다란 대나무로 쿡쿡 찌러대던 친할머니. 지금 이 사람은 그 여자의 아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맞을 때 어떤 기분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닮았다.

스위트룸에 들어선 그에게서는 음식냄새가 났다. 저녁을 먹고 온 모양이다. 딸한테 그 짓거리 하려다 뜻대로 안 되니까 죽도록 패고, 힘이 빠져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저런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입으로 음식이 넘어가는구나.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못 느끼는구나 생각하니 겁이 났다. 밥까지 먹고, 힘을 내서 더 때릴까봐, 앞으로 또 나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 호텔에서 보낼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얼른 날이 밝고, 시험장에라도 가서 이 사람과 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내가 너 내일 시험 보게 할 줄 알아, 대학? 꿈도 꾸지마, 내가 너 시험장에 안 보내. 대학가면 또 얼마나 나를 무시할거야. 은혜도 모르고, 내가 어릴 때 너 친할머니가 남 짚을 때 그냥 둘 걸, 그랬으면 그 집 아들들한테 당하면서 길레같이 살았을 텐데, 내가 이거 봐 이거, 손목까지 그어가며 혈서 써서 너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은혜도 모르는 년, 내가 니 이름을 왜 은혜를 아는 여자가 되라고 지었는데, 부모 은혜를 알란 말이야.”

저 말은 지금까지 수백 번은 더 들은 것 같다. 늘 저 소리다. 그러면서 팔목에 면도칼로 그 흔적을 보인다. 사실 저 정도로는 죽지도 않겠다. 저 정도 그어서 쇼한 건가 싶다. 늘 저 이야기를 했다.

내가 1, 2살 때였다. 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친할머니, 외할머니, 엄마, 아빠란 사람에게서 각각의 시점으로 기억하는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모든 기억을 모아서 정리하면 이렇다.

엄마가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나와 오빠를 친할머니에게 돌봐달라고 맡겼다. 어느 날 엄마가 친

할머니네 가봤더니 오빠만 있고, 나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물어보니 할머니는 잘 키워줄 집에 주었다고 했다. 엄마는 하도 기가 막혀서 어디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답해주지 않았고, 아빠한테 말해서 겨우 아빠가 할머니를 닦달하여 알아냈다. 나는 아들들이 다 장성한 잘 사는 집에 보내져 이미 한 달 정도 있었던 상태였다. 엄마와 아빠는 친할머니가 부모들에게 묻지도 않고 그랬으니 제발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나를 입양했던 아주머니는 정말 친할머니 맞느냐면서 패심해서 못 내주겠다고 했다. 친할머니라고도 안 했고 그냥 애를 키워달라고 맡겼다는 것이다. 그 아주머니 등에 업혀있던 나는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주머니 등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한다. 엄마가 손을 내밀었는데 살면서 고개를 돌려버리며 엄마를 서운하게 했나보다. 얼마나 어린 나이였으면 한 달 만에 엄마를 못 알아보았나 싶다. 나를 입양했던 아주머니는 친할머니 때문에 화를 내면서 한 달 동안 키운 값이라도 달라고 당시로는 꽤 큰돈인 3만원을 요구했다. 아빠란 사람은 돈도 없고 하여 손목을 그어 혈서를 쓰고 제발 딸아이를 돌려달라 했다는 것이다.

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항상 ‘그냥 거기다 두지. 거기서 자랐으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생각했었다. 그냥 부잣집에서 그들을 엄마, 아빠로 믿고, 오빠들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 어떻게 어느나. 지가 딸한테 이런 짓을 하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다 지저분한 짓거리들에 관한 것들뿐이다. 부잣집에서 그냥 자랐으면 지금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더 좋았을지 모른다고 한동안 생각했다. 오늘도 또 저걸 우려먹는군. 지 말로는 손목을 그으니 피가 천장까지 튀고, 정말 이제 죽는구나, 했다는데 그렇게 어렵게 데려왔으면 잘 키우던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나쁜 짓 하려고 데려왔느냔 말이다.

저 사람은 아까부터 계속 그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 지는 저녁 먹고 들어와서 배부르니까 저렇게 떠들어대겠지. 나는 듣고 있을 힘도 없다.

내일이 수능시험인데 이게 무슨 썩난리란 말인가. 꿈같기도 하다. 머리카락을 너무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이 벗겨져 나간 것 같고, 몸은 어디 한군데 성한 곳 없이 얼얼하고, 너털너털하다. 그래도 얼굴은 필사적으로 막아서 크게 다친 곳은 없지만, 입술을 맞았는지 한참 맞은 권투선수들처럼 통통 부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밤은 깊어 가는데 잠잘 생각도 안하고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서, 아무 생각도 못하게 하고 밥도 안 주면서 괴롭힌다. 사실 배고픔을 느낄 여유도 없었지만 밥 먹고 싶다는 말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랬다가는 또 ‘이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니가 나한테 밥을 달래? 라고 할까봐 그냥 참았다. 너같이 나쁜 놈도 힘 빠지게 때리고 밥이 넘어가는데 죄없이 맞지만 한 내가 밥을 못 넘길 이유는 또 뭐냐? 때리면 그냥 맞고, 욕하면 그냥 있었다. 나도 대들 때가 있지만 지금은 흑사라도 기절해서 내일 시험조차 못 보게 될까봐 참고 참았다.

밥을 주고, 잠잘 곳을 제공하고, 나를 잘 키워야하는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밑에 딸을 깔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짓거리 하려는데 못한다고 이러다니. 밤은 점점 깊어가고, 맞은 몸은 여기 저기 부어오른다. 배도 고프고, 졸립기도 하다. 그래도 몸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언제 또 때릴지 몰라 겁에 질린 정신은 배고픈 욕구나 잠자고 싶은 욕구들을 적당히 눌러주었다. 침대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어느새 누워 잠을 잔다.

조용했다. 나 혼자만의 세상에 또 있게 되었다.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소리와 불빛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람의 코고는 소리와 그 사람이 깨지 않게 숨죽여 울거나, 숨 쉬는 나의 작은 소리만 들리는 이곳은 어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르다. 내일이 고등학교 생활 3년을 정리하고, 수능

생존자 말하기 - 수의 이야기

시험을 보는 날인데, 밥새 두들겨 맞고, 육만 먹은 나 같은 아이가 또 있을까? 아빠란 사람이 수능 시험 보기 전날을 무슨 밀월여행이라도 떠나는 것처럼 호텔의 스위트룸을 잡아두고, 신혼 기분 내듯 벌거벗고 같이 샤워하자고 하고, 땀나게 그 짓을 하려다 뜻대로 안 된다고 이럴 수 있는날 말이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지금 자빠져 자고 있는 저 새끼 성기를 확 잘라 버리고 싶다. 마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매를 맞다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구나' 싶은 때가 있다. 그러면 마음과 달리 몸이 잔뜩 겁을 집어 먹는다. 그때부터 입을 시작으로 온 몸이 푹푹 얼어붙고,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한다. 코까지 골며 자는 그 사람은 나를 때리고, 육하다 정말 지친 것 같다. 그렇게 맞은 나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지쳤다. 그러나 또 언제 그가 깨어나 시작될지 모를 매질과 더러운 짓거리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 사람이 뒤척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졸던 잠을 깬다. 절대로 밝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하늘이 푸르스름해 진다. 새벽이 되고, 움직이는 차들의 불빛이 더 자주 지나간다. 드디어 수능시험 날 아침이 되었다. 그 사람이 어제 이야기한대로 수능시험을 못 보게 할까봐 걱정이다. 반 친구들이 생각났다. 나와 같은 시험장으로 배정받았던 친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했을까? 어떤 수험생이 나처럼 밥새 맞고, 쫓졸 굶고 있을까? 어제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날이 더 밝자 그 사람이 일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내가 너 시험 보러 가게 해줄 것 같아? 내가 마음이 약해서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웃기지만, 이번에는 절대 안 돼,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집에서 썩어버려"*

조용히 입술에 힘을 주어하는 욕이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비굴하지만 더 이상 맞지 않고, 시험을 보러 가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조용히 있어야 했다.

*"시험? 웃기지도 마, 너 대학 보내면 니가 또 얼마나 나를 무시할거야, 니가 어제 나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알기나 해? 이제까지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너 같은 건 대학도 가지 마"*

시험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마음은 조금했지만, 나는 그냥 그대로 있었다. 어쩌면 저 인간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며 제발 수능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돼라' 하고 더 가만히 있고 싶었다. 시간이 계속 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즐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무표정하게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참다못한 그가 다급했는지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비닐 봉투에 든 것을 내 발 앞에 툭 떨어뜨린다. 봉지 안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찌만두가 있었다.

*"시험 보려는 안 갈 건데, 나갈 준비해, 그거 먹고"*

배가 고파도 먹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먹으라고 하면 먹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하나 꺼내 입에 넣는데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 그 사람에게 들기면 또 맞을 수 있어, 고개를 들어 눈물을 도로 눈 속에 억지로 넣었다. 그 사람은 그랬다. 괴롭히고, 때리고, 욕해놓고 울지도 못하게 했다. 울면 더 때리고, 또 뺐다. 그것이 두려웠다. 차가운 만두 하나를 입에 넣었는데 삼켜지지 않는다. 우물거리며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호텔로비를 나와서 택시를 탔다.

*"OO 고등학교요"*

그는 수능시험장소를 땀다.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택시 아저씨가 백미러로 나를 수상한 눈치로 흘깃 쳐다본다. 입술은 맞아서 불어터졌지, 40대 정도의 남자와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탔지 이상하게 여길 만하다.

'오늘이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는 날이죠, 지금 수능시험장을 향하는 학생들과 함께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어깨도 토닥여 주시고, 너무 긴장하지 않고 시험 잘 보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은 그때의 라디오 방송 멘트. 택시 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진행자의 멘트가 나를 더욱 초라하게, 불쌍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나도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차창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어 올렸다. 울고 있는 걸 들기면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할까봐 걱정되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시험장 앞까지 왔다. 택시 아저씨와 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방금 전 스위트룸에서의 억양과 어투, 사용하는 단어가 확 달라져 있었다. 정상적인 아.빠.갈.이. 굴고 있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교복을 입은 내 또래의 아이들, 오늘날은 어떤 성질을 부려도 다 받아주겠다는 표정의 부모님들과 함께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니 또 눈물이 났다. 시험장 교문 앞에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 담임선생님을 보더니 너무도 멀쩡한 아빠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애가 좀 긴장했는지, 피곤해 보이죠"*

어느새 나를 쥐어짜고, 집어 들고 던지던 그 손이 내 어깨를 쓰다듬는다. 아, 정말 가슴스럽다. 이 건 다른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시험으로 인한 긴장이나 피곤함이 아니라, 이 새끼야, 니가 정말 몰라? 니가 어제부터 방금 전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런 말이 터진 입이라고 그냥 나오니? 계속해서 속으론 욕을 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담임선생님께서

"OO야,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봐라" 라고 말씀하시며 어깨를 토닥여주셨다.

예의상 하는 말을 원래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입을 열면 갑자기 울면서 아무 말이나 툭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선생님과 아빠인 척 하는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등을 보이고, 시험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험번호에 따라 들어선 시험장에 같은 반 친구가 여럿 보인다. 나는 맞아서 부어터진 입술을 최대한 악물고 내 자리에 앉았다. 시험지를 나눠받고, 시험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모두들 3년 동안 공부한 것을 풀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그랬다. 나는 시험장에 무사히 들어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 떨어져있을 수 있어 좋았다. 아무튼 나는 시험을 보려고 노력했다. 몸이 여기 저기 쑤시고,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많이 뿜혀 뒤통수가 얼얼했다. 집중을 하려해도 잘 되지 않고, 자꾸 어제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짓들과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참고 참으며 시험지를 붙들었다.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나서 시험지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눈물이 시험지를 적시도록 계속 떨어졌다. 그래도 답안지를 꼼꼼하게 채워나갔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도록 서글프면 소리도 못 내고 우는 것 같다. 가슴 한 가운데 뜨거운 기운이 계속 올라오고, 눈물과 콧물이 쉬지 않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한쪽 가슴에 손바닥을 올려 가만히 눌러주었다. '그래 OO야, 많이 아프지, 그래, 아프지' 나는 간신히 나를 위로하며 시험을 봤다. 쉬

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내 책상으로 몰려와 위로를 했다.

*“OO야, 나도 진짜 어려워, 울지 마, 다 비슷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걸. 근데 진짜 시험 어렵지?”*

아니, 니들은 몰라, 내가 왜 우는지, 시험 때문이라고? 내가 어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이야기해 줄까?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가슴을 확 풀어헤치고 미친년처럼 펄펄 울고 싶었다. 다 말하고 싶었다. 이 교실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죽겠다고, 이러다 더 이상 못 견디고 미치든지, 죽이고, 죽어버릴 것 같다고, 아니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고, 울고 싶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졸지에 시험이 어려워 울고 있는 재수없는(?) 여고생이 되고 말았다.

항상 이런 식이다. 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보충수업도 자율학습도 참여하지 못한 건 아빠란 인간이 나를 아픈 엄마 병간호라는 구실을 들어 집에 잡아두었기 때문이다.

그때도 친구들은 내 속 사정도 모르고 오해했었다.

*“너는 좋겠다. 아빠가 매일 차로 데리러 학교 앞에 와있고, 집에 일찍 가서는 과외 받니? 애들이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우리는 이게 뭐야, 매일 보충수업에 자율학습에 지켜워 죽겠어”*

나는 그래서 항상 왕따였다. 아니 친구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도 할 말이 없는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 내게 친구들은 ‘너는 속을 알 수 없다’, ‘왜 말을 안 하나’, ‘왜 너는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느냐’고 불평을 했다. 자기들도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다.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학교에서 먹고, 자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없는 학교에서. 내 사정은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었고, 이야기한다고 내가 이해를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혼자 답답하게 병어리가 되어 쉬는 시간에도 책만 보는 새침한 내가 되어왔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아 병어리로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 나는 입 밖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속으로는 더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다. 입 밖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속으로 더 많이 말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나는 그때 말없고, 조용히 있었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이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싸움을 했다. 미칠 것 같은 날은 중이에 그놈에게 하고 싶은 욕을 마구 휘갈겨 쓴 후 찢어버리기도 했다. 또 하나님한테도 많이 말했다. 여기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다. 제발 이 지옥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해줄걸 그냥 믿겠다고. 지난 8년 동안 괴롭힌 것도 모자라 오늘같이 중요한 날 사람을 밤새도록 패다니, 나는 계속해서 ‘니들은 절대로 이해 못해, 말할 수도 없어,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사는 걸까?’ 맘속으로 소리치고, 소리없이 눈물만 계속 흘렸다. 시험 시간 내내 울었다.

사실 벌써부터 시험장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렵다.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집으로 가야겠지. 어제 밤에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화가 났으니 오늘 밤은 보복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괴롭힐 수 있는 한 최대한 괴롭게 내 속이 찢어지게 파먹겠지 생각하니 몸이 오그라든다. 시험 시간 내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마지막 시험이 끝났다. 다른 친구들은 시험이 끝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친구들과 오늘은 놀러간다며 한껏 들뜬 분위기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일 때, 나는 온 몸의 관절들이 위에서 잡아당기는 줄로 조정되는 생명없는 인형 같았다. 그 사람에게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갈 곳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어 어쩔 수 없

이 시험장 앞에 와서 여느 부모들과 같은 양 서있을 그 사람에게 가야하니 말이다.

시험장 밖으로 나오니 정말 그 사람은 다른 부모들과 비슷한 표정을 하고 교문 앞에서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왔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하고 싶지 않다. 계속해서 어제 했던 말을 반복했고, 시험 봐어도 대학은 안 보낼 거라는 협박을 했다.

*“내가 너 대학 보내나 봐, 너 집에서 썩힐 거야, 니가 대학까지 가면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냐? 집에서 살림하면서 내 애나 넣고 그렇게 살아”*

아~ 귀가 멀어버렸으면, 이렇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때가 있다. 그날의 기억은 여기까지만 떠오른다. 집에 돌아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다행스럽게? 아쉽게? 그날은 전혀 기억이 없다. ☹

■ 水의 한마디

그날의 기억이 더 이상 나지 않아서 글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떠올려보려고 했었다. 그런데도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까만 도화지처럼 아니면 하얀 도화지처럼 어떤 것도 없다. 그런데 그게 다행스러운 건지 아쉬운 건지도 잘 모르겠다. 힘든 기억이 전혀 없는 것이 다행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아프고 힘든 기억이면 전혀 떠오르지 않을까 싶으니 화도 났다. 또렷하게 기억해서 글로 쓰고, 그걸로 더 미워하고, 더 욕해주고 싶기도 한데. 또 여기다 써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해주고, 더 미워할 수도 있는 건데 싶기도 해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볼 때면 '나도 참 독한 년이다' 싶다. 갑자기 생존자 말하기 대회 때 들었던 문구가 생각난다.

"질긴 년 독한 년, 그래 우리 살아있다!"

■ P.S

원고마감을 넘긴지 한참 되었다. "질긴 년, 독한 년"으로 이번 글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렇게 쓰고 나서 보 내려했으나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다. 양심에 걸렸다.

난 사실 요즘 많이 힘들다. 질기고 독하게 살아서 지금 살아남았지만 계속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질기지도 않고, 독하지도 않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요즘이다. 걸핏하면 눈물이 나고, 지금 쓰고 있는 글들이 의미는 있는지 의문이 들곤 한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살아가는 게 더 나았을까' 라는 생각마저 든다.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개같은 아빠밖에 살아있는 부모가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고, 돌아가신 엄마를 하늘나라에서 끌어내리고 싶은 지금. 남자친구 쪽 부모님이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반대도 심한 것을 견디는 게 힘든 요즘. 정말 힘들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쓰는 글을 응원해주는 남자친구와 친구들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글을 쓸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뿐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죽고 싶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개같은 아빠를 주셔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강간을 당하게 하셨나요?"라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밤이다. 이 글이, 내 삶이, 내가 살아내고, 견뎌낸 고통의 시간이 의미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당신에게.



연재 4th

# 말하기를 가해자를 그 날하다

◎ 진

그러나 나는 사건의 종말을 보고 싶었다.  
센터장의 몰락보다는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는 과정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1년이 넘는 세월을  
굳이 흘려보낼 필요가 없었으니까.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정들었던 캄보디아 직원들과 함께 몇몇 한국인과의 아쉬운 작별을 뒤로 한 채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온 바로 다음 날, 밝은 시각에 집 전화벨이 울리고 어머니가 수화기를 건네주었다. 내 귀국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본부의 여성 본부장이었다. 마치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 무슨 일이라도 크게 벌일지 몰라 애초에 싸이라도 자르려 작정하고 전화한 듯, 더없이 다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냥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해. 나는 젊었을 때 그보다 더한 일을 겪어도 다 용서했어. 기독교 믿니? 예수님의 자비로 용서를 어찌구지저구…….” ‘모 여성단체’ 경기도 부천인가 하는 어느 지회 지부장이었다는, 인생 선배라는 말을 들먹여가며 온갖 회유성 발언을 쏟아내는 그의 얘길 들으며 나는 소리까지 버럭 내지를 정도로 이성을 잃었다. 여성 리더십을 들먹이던 인간의 개인사와 속내가 결국 이렇게 끝사나왔더니. 너무나도 환멸스러웠다.

답답하고 암담한 심정에 인터넷을 뒤졌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 늙은 여우같은 미친놈을 하루 빨리 한국으로 불러다놓아야 하는데. 거기서 더한 추잡을 떨고 있을지 모르니까.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정보였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무턱대고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고, 며칠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감정적으로 많이 흥클어지고 두서가 없었지만, 나와 주변 사람들이 받은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든 이를 방지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기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상담소를 통해 두 번이나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받았다. 일단 내가 겪은 일이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할 만큼인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했고,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그대로 묵과할 수 있는 차원인지도 궁금했다. 처벌 수준이나 피해구제방법, 위험 부담 등 법적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해 무지한 형편이었으므로, 상담소 활동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큰 힘이 됐다. 한편으로는 인권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간을 두고 진행됐지만 인권위 조사관을 대면해 일대일 조사를 받았고, 여

러 차례에 걸친 통화로도 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사건 해결(당시 상황에서는 센터장 소환을 의미)과 캄보디아에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의 경중이 비슷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고소 진행은 최후의 방편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굳게 닫힌 본부에 절망을 느끼면서도 본부장을 통해 일단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간접 요청해 놓았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사무총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지없이 또 한번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사무총장이 수용하든 안하든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전달했다. “센터장의 강제 소환”과 “대면 사죄”. 사실 사죄 중용은 사무총장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해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 “강제 소환”이어야 한다고 수십 번을 강조했지만, 소위 “아름다운 노년의 장엄한 귀환” 식의, 60대 노인이 은퇴 후 열대지방에서 봉사활동에 힘쓰다 기력이 쇠진해 돌아오게 되었다는 스토리로 감쪽같이 둔갑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물론 나는 여전히 센터장의 표현을 빌린 “정신이 이상한 사람”에 머물러 있었다.

마침내 본부측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졌다. 허겁지겁 귀국한 직후 한 달만이었다.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민망함을 무릅쓰고 어머니까지 대동해 본부에 사무총장을 만나러 갔다. 그만두기는 했어도 내가 잘못된 게 없음을 증명하고 싶었고, 센터장이든 기관이든 대충 상황이 다 알려진 마당에 얼마나 더한 꼴을 보이겠나 싶기도 했다. 0%의 진심을 담은 미안하다는 한 마디라도 좋았다. 가해자인 그가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내고, 피해자인 내가 정신이상자로 몰리는 어이없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다. 그러나 역시 큰 착각이었다. 2시간에 걸친 대면 대화에서 그는 여전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요리조리 살살 피하면서 나와 내 어머니의 약을 올렸고, 본부측의 사무총장과 여성 본부장은 단체에 불통이라도 될까 전전긍긍하며 발뻠하기에 바빴다. 심지어 그 날 그 자리에서 “너 혼자 살자고 단체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말까지 듣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른다. 결국 이날 대화는 무의미하게 끝났다.

저만치 두고 관망하기만 했던 ‘형사고소’라는 단어에 점점 무게를 실게 되었다. 힘든 싸움이라던데.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기 십상이라는데.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더욱 지쳐 나가떨어질 수도 있다는데. 모두들 이런 우려에 걱정을 앞세웠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내 손을 들어준다 해도 해당 조치에 대한 법률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질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거두기 위해 발을 뻗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했다. 결국 상담소 활동가와 인권위 조사관의 조언에 용기를 보태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다.

3월 중순, 방배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TV에서나 봤던 유치장 창살과 총천연색 대합실 의자가 황량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폭력수사팀에서 한 시간 가량 수사관들과 대화를 나눴다. 피해자의 직접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이런 사건의 성격상 증거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까딱하면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현실을 두세 명의 수사관들이 입을 모아 재차 강조하며 우려 섞인 의견을 전했지만, 이미 각오한 터라 별다른 심적 동요는 없었다.

돌이켜 보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왔나 싶을 정도로 끔찍하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센터장과의 대면. 굳이 대질신문이 아니어도 한 장소에서 얼굴을 마주치고, 목소리를 듣고, 또 한 편의 장황한 소설을 써내려가는 모습을 봐야만 하는 현실이 몸서리치게 싫었다. 나에 대해 여전히 모욕적인 인사를 서슴지 않는 그를 보며 쉽지 않은 싸움에 절망스러워 길거리에서 한 시간을 평평 울기도 했고, 거짓말탐지조사를 받으면서 별 경험을 다해본다며 짐짓 들떠하기도 했던 순간들이 지나갔다.

내가 겪은 일은 해외 봉사단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일어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성추행이라서 특히 많은 관심을 받게 아닌가 싶다. 인권위에서는 전례 없이 형사고소로 이미 넘어간 사건을 그대로 맡아 ‘언어적 성희롱’ 부분을 집중 조사해 주기로 결정하여 조사관이 처음으로 해외 파견 조사를 나가 캄보디아에 다녀오기도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건 해결 종료를 목 놓아 기다리며 불안한 심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2007년 9월, 마침내 인권위의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알려졌다. 사상 첫 고액이라는 ‘3,000만원 배상 판결’이 권고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물론, 가해자의 이행에 관련해 법적 효력이 담보되지 않은 권고이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내게도 조사관에게도 매우 컸다. 그러한 결정은 인터넷 종합매체에도 보도자료로 배포되어 실시간 뉴스로 여러 신문사에서 나와 가해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손에 쥘 것은 없었지만, 감격스러웠다. 그간의 심적 고통이, 내 마음고생을 헤아려가며 도와준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위로받는 것 같아 정말 기뻐했다.

인권위에서 내 진정건의 ‘성희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경찰서에서는 ‘성추행’ 부분이 동시에 수사되고 있었

다. 수개월에 걸쳐 서너 번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받았지만, 별 다른 결론 없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강도 높은 검사의 수사에도 가해자는 잠시 수그러들다가도 인정은커녕 여전히 나를 뜯김없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소실가로 둔갑시키는 등 비이성적 행동으로 검사의 빈축을 샀다. 인권위 조사관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단계에 접어든 듯 했다.

경찰서 수사관과 검사는 수사의 어려움과 결과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러 번 내게 합의를 권유했다. 피해 보상이라는 것이 결국 가해자의 ‘미안하다’는 한 마디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금전적인 배상이 피해자인 내게 더 좋은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건의 종말을 보고 싶었다. 센터장의 몰락보다는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는 과정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1년이 넘는 세월을 굳이 흘려보낼 필요가 없었으니까.

판사를 마주하고 법정 중간의 증인석에서 서서 선서를 하던 때가 기억난다. 이런 것까지 경험해봐야 하나 싶어 가슴이 먹먹했지만, 잘못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다독여주시던 활동가 선생님이 사무치게 고마웠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나 싶게 순식간에 지나갔던 순간이었다. 그 날 가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인이 내게 쏘아댄 무책임한 화살들과 대충 집적이 간다는 듯 공명정대한 표정을 지으며 허둥대는 가해자의 변호인을 몰아세웠던 판사의 얼굴도 떠오른다.

마침내 작년 7월, 원심과 항소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결국 그는 2개월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해야만 했고, 이로써 2007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친 지리멸렬한 싸움이 끝을 맺었다.

대질신문 중간에 잠시 쉬던 사이 울먹거리던 내게 경찰서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사주고 손수 타신 커피를 건네주며 다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큰 힘을 실어준 수사관, 갑작스런 소환 요구에 바쁜 일정을 빼기가 여의치 않아 곤혹스러워하던 나를 일부러 한가한 주말에 불러내어 조사하고,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주의사항을 세심히 일러준 검사, 내가 겪었던 일을 당사자인 나보다 더 아파하며 나를 버틸 수 있게 한 인권위의 조사관과 상담소의 활동가.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나는 생각한다. 내가 겪은 일이 미미한 고통의 길이었겠지만 그런 작은 상처를 보듬어주던 수많은 이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이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지렛대가 되어준 분들과 그 아꼈던 시간 덕분에 나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곧 나는 새로운 발걸음을 땀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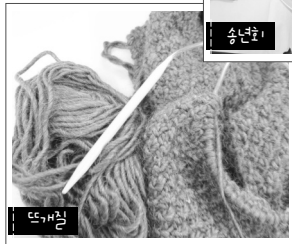


# Diary 열림터 다이어리



## 12월

- 한해를 보내는 풍성한 시간과 풍성한 음식, 원추 ^^
- 한 코, 한 코, 목도리 완성!



## 09.1월

- 한 땀 한 땀, 예쁜 손자갑도 만들었어요.
- 더 멋진 모습으로! 헝스, 이리, 사자



## 09.2월

- 열림터에 꽃핀 여성주의
- 지원 사례 돌아보기



올해의 다이어리는 한해를 계획하는 글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 쓰는 다이어리다 보니 누구나 그렇듯 조금은 비장한 마음도 드네요. 2009년, 15살이 된 열림터는 올해 이런 목표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열림터 식구들을 잘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열심히 현재를 고민하며 찾아나가야 합니다. 열림터 식구들이 안전한 환경에 생활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고, 살피고, 자신의 권리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올해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둘째로는 열림터 활동가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세 명의 활동가로 항상 쉽지가 않아요. 열림터에 맞는 운영 규정을 만들고, 활동가들이 재충전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열림터 식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을 잘 마련하고 정돈하는 일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과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열림터 집이 아닐까요. 식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넷째는 친족성폭력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려 합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연구 작업을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기간을 거쳐, 생존자의 삶 속에서 친족성폭력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고 나면 늘 하던 일인가 싶지만, 올해도 열심히 달리면서 늘 기억하고 활동해야겠다고 더 다짐해봅니다. 열림터를 후원하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 마음가는대로

◎ 부설 열림터 원장 오정희

50년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남 앞에 내 세울 것은 없지만 참 바쁘게는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렸을 땐 나를 죽이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고분고분 살아가는 법을 모난 돌이 정 맞듯 교육받았습니다. 당시엔 내 속에 파리처럼 틀어 앉은 불만들이 바로 모난 돌이라 알았고, 행여나 '정' 맞을까 드러내지도 못하고 스스로 삭이고 감추느라 바빴고, 그러하니 뻥하게 보이는 미래가 너무 싫어 억울할 때가 많았습니다.

미래가 뻥히 보인다면 참 재미없을 겁니다. 그것도 썩 좋지 않은 모습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엄격한 교육의 결과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소한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양보하는 것이 마음편한 여자라면 당연히 도식화된 여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어렸을 적 일인데, 새장에서 새를 꺼내 놓았지만 그 새가 제대로 날지를 못하였습니다. 멀리 힘차게 날아 갈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새는 빗자루로 쫓아도 주변에서 맴돌다 다시 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날지 못하는 새는 제게 무척이나 충격이었습니다. 새처럼 사람도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척 두려웠습니다.

언제부턴가 습관처럼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를 돌아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감탄을 하곤 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는 전혀 계획한 적이 없는 도식화되지 않은 그야말로 신선한 자리였습니다. 도식화된 미래만 보였으니 계획은 늘 그 쪽으로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은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계획에만 없었을 뿐이지 늘 꿈꾸고 원하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자리,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삶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5년 후, 10년 후가 기대되었습니다.

문학을 할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작업을 하는 그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주변의 눈총에도 굴하지 않고 맡은 역할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감을 찾아주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면서는 내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주도하는 물결 속에 속해있다는 것이 참 살맛나게 하였습니다. 의욕이 과했는지 작년까지만 하여도 무척 지쳐있었습니다. 올엔 일을 접고 쉬려고 5년 가까이 일했던 단체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지리산과 사자가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하며 밎고 열림터 일을 맡기고 싶다고 했을 때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 고마움으로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깨끗이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인정받는 것과 신뢰가 이렇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가 꿈꾸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만큼 소중하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젠 마음 가는 대로 몸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

# 몸, 마음, 혼의 통전과 치유

연재 3/3



◎ 본 상담소 회원 가온

**몸, 마음, 혼**

지난 여름 말레이시아 여행에서 나는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 화교들이 보는 신문에 실린 '기공'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기공은 인간을 '몸, 마음, 혼'으로 된 존재로 보고, 기공 수련을 통해 어떻게 이 세 부분이 하나가 되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몸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했던 나는 유럽 중세 시대 기독교 수도원에서 인간을 '몸, 마음, 영혼'으로 된 존재로 보고 이 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던 그들의 철학과 수도 방식이 중국의 '기공'과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초의식 심리학자 켄 윌버는 심리학, 선불교, 철학을 종단하며 인간 의식을 연구한 결과, 인간에게는 육신의 눈, 마음의 눈, 관조의 눈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인간이 세 가지 영역, 즉 감각영역과 지적영역, 초월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 중 어느 한 영역에만 치우치게 되었을 때 빠지게 되는 위험과 이 세 영역이 궁극적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방대한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동·서양의 과학과 종교의 지혜를 꿰뚫는 윌버의 책을 읽는 내내 떨림으로 발견의 환호를 질렀습니다.<sup>1)</sup> 키라의 글에서 이야기한 대로 몸의 의지는 마음(의식)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체의 역사와 영역이 있으며, 이는 의식과 영혼 역시 몸과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영역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차원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은 통전(통합)되어 있으며, 그것을 칸막이처럼 구분하여 마치 영혼은 몸 밖에 동등 떠 있고, 머리는 몸에 지시를 내리고 몸을 통제한다고 여기는 과학적, 합리적, 서구의 분리주의적 사고방식은 본연의 몸, 마음, 영

혼의 통전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인지 방식을 우리에게 주입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할 때와 영혼으로 관조할 것조차 모두 머리(이성)로만 헤아리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감정)과 영혼을 인식하고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과 철학은 우리의 온전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지식과 과학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전성이 깨어질 때,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제로 분리되어야 할 때, 나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나 어린 아이가 엄마와 분리될 때 느끼는 분리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지요.

## 통전

<작은 말하기>에서, 그리고 수녀님의 생존자 수기를 가슴을 치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내 '몸'과 의식을 분리시키고 영혼을 저 깊숙이 감추어야 했던 순간들.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피해 현장을 서둘러 빠져나오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엄마 아빠를 대해야 했던 순간, 나는 내가 아니고, 내 몸은 내가 아니고,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그때, 나는 산산이 분해되어 더 이상 내 존재가 내 몸 안에 거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트라우마의 순간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피해 입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분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말하기>에 망설이고 망설이다 찾아와서 낯선 그곳에서 그녀들이 입을 열었을 때, 그녀를 그곳으로 이끈 힘은 마음과 영혼이 그 몸의 기억을 보듬고 자 하는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밀

어두고 밟아두었던 몸의 감각들이 살아나서 아프게, 아프게 떨리던 몸들, 눈빛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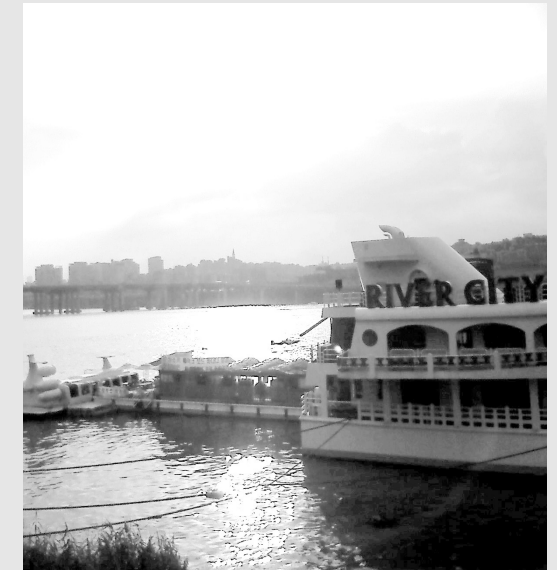
몸의 경험, 아직 몸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생생한 감정들과 화해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과 영혼은 너무나 아프지만, 마치 고통의 손이 몸통으로 들어와 심장을 꼬집어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이 온전한 치유의 과정이기 때문에 <작은 말하기>에 와서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고, 떨리는 손으로 생존자 수기를 쓰는 것이리라 기뻐했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생생하게 생을 살아내고자 하는 생명력, 그것이 그녀들의 입을 열고, 글을 쓰게 하고, 여기 지금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게 하는 그녀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강했고, 그래서 그 아픔의 목을 닦아채 던져버리고 가볍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4월에 만난 그녀를 7월에 다시 보았을 때 얼굴에 생기와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치유는 몸과 마음과 혼이 하나 되는 통전의 순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상담소의 프로그램도 몸의 언어로 들어가 치유와 힘을 기르는 새로운 시도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이코드라마의 우리말이 마음-몸(땀)곶이었습니다.<sup>2)</sup> 사이코드라마가 치유의 장인 것은 마음과 몸이 '땀'으로 통전하는 곶판이기 때문이며, 춤 세라피가 치유의 춤판인 것은 춤을 통해 몸, 마음, 영혼의 경계가 무장해체되어 우리 전 존재가 춤추기 때문이었지요.<sup>3)</sup> 제 5회 말하기 대회(연중유희)는 치유의 큰 춤판이고 곶판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온전한 존재로 한판 울고, 돌아보는 신명의 축제, 치유의 제의.

## 다른 몸

여성주의 이론은 다른 몸과 다른 신학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여전히 다른 몸의 체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이론, 그 지적혁명이 결코 고립된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듯이, 다른 몸의 체험과 다른 몸의 이야기 역시 집단성,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나 자신의 의지 부족도 크겠지만, 성차별적인 이성애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다른 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과 행위가 지닌 성차별적이



고 이성애중심의 모순을 직면하며 내적인 긴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외로운 작업이며, 그것이 주는 큰 해방감만큼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른 몸 되기는 다른 몸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몸 친구들을 보고, 욕망하고, 따라하고, 함께 "으샤 으샤"함이 없을 때 나의 이론도, 몸 훈련도, 의지도 모두 제 자리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다른 몸'이 아닌 '다른 몸'을 원하는 내 안·밖의 요구들로부터 나는 다른 욕망을 꿈꾸고 싶습니다.

바람을 가로질러 뛰는 내 존재의 생생함을 느끼고, 숲속의 고요와 푸르름 속에서 너와 나와 산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그 감각의 순간을 다시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나의 다른 몸 이야기가 당신의 다른 몸 이야기를 꼬집어 내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다른 몸 이야기, 다른 몸 체험. 나는 그것을 알고 싶기에 해보려 합니다. 나는 이제 출발선에서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쉬다가 울다가 웃으며 가보려 합니다. ☺

- 출발선 앞에서, 가온 드림

1) <아이 투 아이: 감각의 눈, 이성의 눈, 관조의 눈> 켄 윌버 지음, 김철수 옮김, 대원출판  
2) 나눔터 59호, 전 상담소 활동가 이진의 "사이코 드라마, 마음의 극장"을 참고하였습니다.  
3) 나눔터 57호, 전 상담소 활동가 모모의 "춤 세라피 워크숍 소개"를 참고하였습니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 ‘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 감독 조세영

○ interviewee\_ 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 감독 조세영  
○ interviewer\_ 여성주의상담팀 이어진

“ 처음 세영 감독을 만났을 때 느낌은 ‘참 작다’ 는 것이었다. 비쩍 마른 몸에 손도 작고, 키도 작고, 머리도 작았다. 그런데 등 뒤에는 항상 자신의 키보다 크고, 몸보다 무거운 카메라를 지고 다녔다. 만취한 상태에서도 어느샌가 카메라를 들이대는 감독을 보면서 ‘감독은 감독이군’ 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세영 감독은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말하기’ 공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다수의 ‘참이슬, 처음처럼, OB’ 모임에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4월경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카메라로 담은 ‘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 라는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세영 감독은 왜,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을까? ”

**이어진** ‘감독’이라는 멋있는 이름을 달고 있다. 처음부터 감독을 하고 싶었나?

**조세영** 감독이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냥 영화를 보는 것이 좋았다. 캄캄한 곳에 박혀서 영화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걸로 좋았다. 내가 워낙 게으른 사람이라 영화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영화동아리가 영화를 보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영화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라서 의지에 상관없이 영화 만드는 기술에 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편집기사일도 하게 되었고, 중간에 영화와 상관없는 감정평가사 공부도 했고, 틀어박혀서 소설책만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다. 재미있었다. 그러다 시험을 이틀 앞둔 어느 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10년 후에도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때려치웠다.

**이어진** 그러다 흥행대작 ‘가족이라는 집단이 가진 허구성과 폭력성’을 드러낸 안티가족다큐 ‘쇼킹패밀리’에 출연하게 된 것인가? 출연하면서 어땠나?

**조세영** 너무 상업적 멘트 그대로 읽어오셨다(웃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비중 있게 출연하게 될지는 몰랐다. 나는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촬영하면서 고민도 많았다. 언니는 지금도 내가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카메라를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나는 원래 말이 없다. 혼자 놀고, 혼자 밥 먹는 것을 좋아한다. 집에서도 별로 엄마랑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염치없이 카메라를 들 때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문득 ‘우리 관계의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어진** 여과 없이 드러나는 세영 감독과 어머니의 싸움을 보면서 설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격하고 사실감 있게 느껴졌다.

**조세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 각본 아니냐는. 근데 엄마가 사실 카메라를 신경을 별로 안 쓴다. 본인이 흥분하면 카메라의 존재를 잊는 것 같다. 여성영화제에서 첫 상영회 때 엄마도 왔는데, 부끄러워하는 듯 했지만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 씩 좋아하는 듯 했다. 정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말이다. 그러면서 엄마를 엄마, 여자 그리고 한 인간으로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훨씬 관계가 좋아졌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한 것’이 엄마에게 참 좋았던 것 같다. 새벽을 지나 아침까지 엄마와 인터뷰를 했는데 “누가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나”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다.

**이어진** 그렇게 영화를 찍고, 어떻게 상담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

**조세영** 3회 말하기대회 촬영을 시작으로 상담소를 알게 되었다. 상담소 활동가들을 보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기도 했고, ‘상담소가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뭐 이제는 활동가들과 친해지면서 괜찮아졌지만 처음엔 절대 막 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천천히 ‘성폭력?’이라는 화두가 나에게 들어왔다. 쇼킹패밀리가 나오고 2006년부터 데이트성폭력에 관심이 갔고, 어이없게 영화찍겠다면서 상담소로 전화해서 피해자 연락처 알려달라고도 했다. 그러다가 선유도공원에서 낚술 마셨던 그날, 5회 말하기대회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날 참 통쾌하고 재밌었다.

**이어진** 자연스럽게 작은말하기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 같다.

**조세영** 그렇다. 나 또한 피해자이고, 카메라를 든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참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거기서 지금 영화의 참여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이어진** 세영감독의 많은 고민이 담긴 영화일 것 같다. ‘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 어떤 영화인가?

**조세영** 이 영화의 생명은 모자이크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생존자들이 무겁지 않게, 밝은 톤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껄이는 것이다. 생존자 각각의 스타일이 너무

entertainment

만나고 싶었습니다. ‘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 감독 조세영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따라가고 함께하는 과정이 어렵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 '내가 어떻게 드러날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 내가, 내 고민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관자이기 때문이다.'

**이어진** 끝으로 나눔터를 보실 상담소 회원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한다.

**조세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 마치 회고전이라도 하는 노인이 된 기분이다. 돌이켜보니 나는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려고 참 노력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미 있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보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생각하던 것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

“ 세영 감독은 카메라와 작은말하기를 통해 말이 늘었다고 했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세영감독은 자신의 결정과 그 결정을 믿고 해왔던 활동에 어떤 의미나 수식을 달지 않았다. 마음이 가는대로 움직였고, 그것이 본인이 바라던 미션이자 삶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처럼 카메라를 지고, 메고 그렇게 상담소 행사 한 칸에 조용히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질지 모르겠다. 세영 감독은 밝고 화사한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만들어 내기 위해 음악, 편집에 며칠 째 밤을 새고 있었다. 나는 무척이나 설렌다. '성폭력피해생존자' 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가 모자이크 없는 영상으로 나온다는 것이 말이다. 그것은 출연진에게 온전히 박수를 보낼이 마땅하지만, 그들을 카메라로 옮겨올 수 있었던 세영 감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한 영 감독에게 또한 박수를 보내고 싶다. ”

**'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 제작을 위한 후원금을 부탁드립니다!**

영화제작을 위한 지원금을 일부 받고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감독이 빚을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막판 작업이 몰리면서 이마저도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응원하신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금을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10-255-858936 (예금주: 조세영)

소모임 생각

'소모임 생각'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소모임들이 돌아가며 그간의 만남을 통해 길어낸 생각들을 풀어내는 꼭지입니다. 2009년 나눔터에서는 「여성주의 소설읽기 소모임」에서 고정칼럼을 연재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아래에서 함께해요!

마르지, 달려!  
「페르세 폴리스」를 읽고

\* 작가 : 마르잔 사트라피

◎ 소모임 〈여성주의 소설읽기〉 회원 난이



▲ 마르지의 주역 : 동명 애니메이션 '페르세 폴리스' 중에서

화려한 포장 이면에는 엄혹한 현실이

'페르세 폴리스'를 감싸고 있는 포장은 매우 화려하다. 빨강, 파랑 원색 바탕에 검정 액자테를 두른 표지는 어느 서가에 꽂히더라도 독자의 눈을 잡아 만하며, 책의 이름 '페르세 폴리스(주인공이 사는 이란의 기원인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는 우리 역사에서는 없었던 이국의 풍요를 떠오르게 한다. 뽀인가. 동명 애니메이션이 작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등으로 언론의 관심을 제법 받았으니 원작인 책이 받고 있는 대접도 상당한 편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우리가 펼친 페르세 폴리스의 현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매순간 시험함으로써 주인공 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것이었다. 저자이자 주인공인 마르잔 사트라피(이하, 마르지)는 고국 이란에 머문 14년 동안 이란혁명과 이란-이라크 전쟁을 통해 타국의 독재자는 물론 자국의 군부와 종교적 근본주의자에 의해 수백만의 가족과 이웃이 희생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기꺼이 죽을 수는 없지만 또한 순응할 수 없는

주인공 어머니의 말처럼 수도 테헤란이 하나의 거대한 공동묘지가 되는 과정에서 성장해야했던 어린 마르지는 그래서, 죽지는 않을 만큼 소극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표명하곤 했다. 종교적 근본주의자가 금하는 핑크락을 들고 히피 패션을 흉내 내며 마르크스를 읽고, 짧은 차도로로 화장한 얼굴을 드러내거나 파티하는 것. 다른 곳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청소년의 행동이 마르지와 그 친구들과에게는 자유의지를 버릴 것인가 가질 것인가를 결정케 하는 버거운 실천강령이 되버린 것이다. 버거운 실천강령을 더욱 버겁게 하는 것, 그러나 진정 실천강령의 묘미를 살게 하는 것은 마르지가 여성으로서의 억압을 자각한 사실이었다. 누군가 미리 내통하였는지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거의 모든 종교는 원칙적으로 여성을 '신성'의 세계를 파괴하는 '유혹'으로 호명하고 있는 바, 이러한 종교가 근원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을 사는 마르지에게는 '달리기'도 매혹적인 공동이를 상상하게 하여 남성을 유혹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달리는 마르지를 멈추게 하려는 군인들에게 "그럼 당신들이 내 공동이를 쳐다보지 않으면 될 거 아냐!"라고 한 일성은 일견 쉬워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강령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마르지의 배반이 우리에게 남긴 것

나아가 우리 중 혹자는 이런 버거운 현실에서 마르지가 대안적 정치조직에 투신하여 혁명을 꾀하는 일원이 되거나 또는 여성 해방투사로 거듭나 이란여성의 삶의 굴레를 벗기기를 바랐을 지도 모른다. 아니, 그것은 사실 혹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바람이었다. 마르지의 부모가 아낌없이 제공해준 물질적 지원, 즉 서구사회로의 유학의 기회 등이 마르지의 실천강령을 업그레이드하여 이란사회에 더 혁신적인 성과로 되돌아오기를 바란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질주하는 '영웅'이지 바로 스스로의 자존심에 연민하고 위안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르세 폴리스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러한 기대를 일견 배반한다. 성장한 마르지는 가부장적 남성의 이상에 스스로를 맞춰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택한 후 새로운 꿈을 찾아 서구사회로의 망명길에 오른다. 세상에, 그녀의 이혼을 논하기 전에, 그녀가 이란을 떠날 수 없는 수많은 여성들을 뒤로한 채 이란을 떠났다는 사실 약간은 놀랍기도 했고 당혹스럽기도 했다. 그러면, 과연 그녀의 달리는 멈출까? 소설 모임원들과의 뜨거운 논의를 통해 나는 나름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녀가 달리를 포기했다면 이 '페르세 폴리스' 역시 이국의 이토록 평범한 나에게까지 이를 수 없었을 것임을. 자신의 영웅스럽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소소한 일상과 좌절, 이란 그리고 이란 여성의 현실에 대한 담담한 이야기가 나름의 방식에 의한 또 다른 실천강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다면, 파란만장한 역사의 질곡과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있어 이란에 그리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우리는 지금 어쩌고 있는 것일까. 전력질주가 아니라면 차라리 뒤로 걸겠다는 터무니없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웅이 되지 못하였다는 자책으로 마음을 미리 갈기갈기 찢어 사자들에게 던진 채 지킬 마음이 없음을 홀가분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삶에서 서서히 호흡을 고르면서도 지치지 않고 달리는 선수의 가치도 인정한다면, 마르지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새로운 주문은 탄생할 수 있다. "달리자, 나만의 호흡으로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끝까지, 지치지 않고!" ☺





# 똥다! 상담소



### 12.29 반성폭력운동 제도화대응회의

12월 29일, 6개단체가 함께하는 반성폭력운동 제도화 대응모임의 2008년 활동 평가 및 2009년 계획회의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새울행정시스템(정보인권)과 시설평가, 협의회 사단법 인화 문제 등을 중심 안건으로 논의하였으며, 특히 "행정시스템과 정보인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토론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으며, 이후 별도의 IT 결성하여 논의를 심화하고, 이 문제의식을 전국성폭력상담소 단위로 넓혀 활동해왔습니다. 우리 상담소에서는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 사무국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며, 새울행정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 시스템의 문제, 여성부 시설평가제도의 목적 및 지표 등의 문제,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따라 여성폭력피해시설을 관리하는 문제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입니다.

### 12.30 MB악법 반대 기자회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와 우리 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함께 한 <MB정권 악법개정 여성행동>에서는 12월 30일 오후1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침묵시위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법, 언론중재법 등 7대 언론관련법 개정안과 사인 없는 정부, 부자,특권층 만을 위한 감세 법안, 국민의 의로비 부담을 높이고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의료 민영화 법안 등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및 침묵시위를 했습니다.

### 1.8 제2차 계획회의

2009년 제2차 계획회의가 열렸습니다. 상근활동가들이 미래전략 워크숍 및 1차 계획회의를 통해 만든 계획안을 또다시 다듬고 수정하여 더욱 멋진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하여 토론에 토론을 거쳤습니다.

### 1.14 2009년 첫 재정자문위원회

2009년 첫 재정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상담소 3개년 재정자립기반 모색반안 검토, 2009년 참여기획 활동계획 검토 등이 이뤄졌습니다. 회원모집에도 적극적인 것을 다짐하셨던 자문위원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1.14 신입활동가 첫 출근

앞으로 상담소와 함께할 신입활동가들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장장 3일에 걸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상담소를 향한 애정과 활동에 대한 의욕이 하늘을 찌르는데 소문이 들리는데, 앞으로 큰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 1.17 여성연합 2009 총회

1월 17일에는 여성연합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이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MB악법 저지를 위한 작은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전국 여성운동 활동가들이 준비한 개사노래들과 월 2,990원에 저렴한 가격에 모시는 전국민 촛불항쟁 서비스 패러디, 미쳤어~ 노래에 따라 혼신의 힘으로 표현한 춤 공연까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안들, 꼼꼼히 따져보고 함께 반대해주세요.

### 1.19 더트리그룹과의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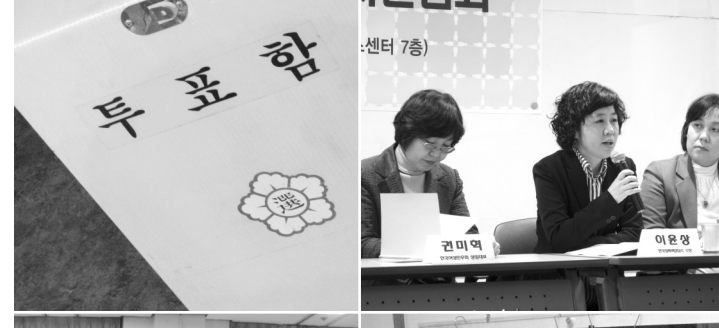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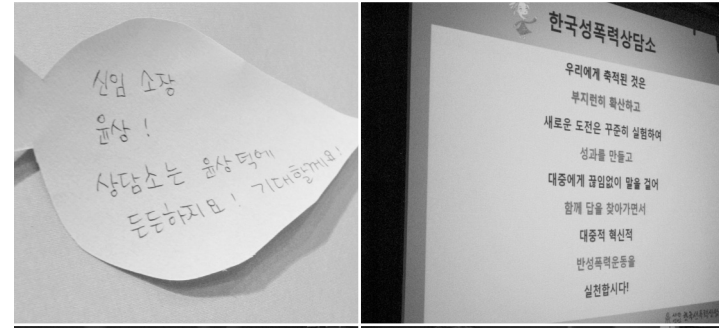
우리 상담소 연계기관인 더트리그룹과의 작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하기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성폭력전문상담원을 위한 워크숍을 함께 기획해보기로 하였습니다.

### 1.29 1월 이사회

1월 상담소 이사회에는 신입이사 2분을 포함하여 7분의 이사님들이 참여하였고, 상담소 2008년 활동평가, 2009년 계획에 대해 예리하고도 구체적인 의견과 궁금점을 나누었습니다. 이 날 논의를 통해 상담소 재정자립 3개년계획을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고, 상담간수 감소에 대한 상담소의 입장과 질적상대에 대한 분석도 훌륭히 이뤄져야 함을 공유했습니다.

### 1.30 성범죄 양형기준안 의견서 제출

우리 상담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공청회에서 성범죄 양형기준안의 전문가 토론에 참석하는데 이어, 지난 1월 30일 수정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1.31 제18차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1월 31일, 유니이트홀에서 제18차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상담소의 주요 안건을 보고 및 의결했으며, 제9대 선임 소장을 선출했습니다. 총회 이후에는 소장 이취임식을 진행하였는데, 6년간 소장으로서 수고한 이명자 전임 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 취임하는 이은상 소장을 축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2.3 새울행정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을 전면 거부하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들의 대응회의

피해자, 시설종사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과도하게 집적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새울행정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을 전면 거부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사용 입력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 2.6-7 반차별공동행동 워크숍

2월 6일부터 7일까지 반차별공동행동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반차별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단체에서 참여하여 2008년 평가와 2009년 활동계획에 대한 방생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2009년에도 반차별의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 2.11 여성폭력 형법개정방안 논의모임

여성운동단체들의 연대모임인 형법개정대응모임은, 지난 2008년 6월 법무부 형법개정위원회의 기속적인 공청회 이후에 결성되었습니다. 형법개정은 오랜 과제이지만, 개정 방향과 내용은 중요한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성폭력특별법, 성매매방지법 등의 특별법의 형법상 편입방향, 성폭속의 관한 죄의 개정방향과 세부적인 폐지, 개정안까지, 굵직한 주제에서 세부적인 쟁점을 이루고 평등과 인권의 시각을 담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2.11 국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협력기관 체결

우리 상담소는 국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의 협력기관으로 앞으로 2년동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2.17 <군내 인권피해자 권리 보장,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2월 17일, 군내스토킹피해지원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군내 인권피해자 권리 보장, 무엇이 문제인가? - 군내스토킹사건을 중심으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상담소의 전 활동가 이상의 발제와 이경찬(법무관),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의 토론을 통해 군내 스토킹 사건의 법적 투쟁의 기록과 군내 피해자 구제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였고,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18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기자간담회

2월 18일, 우리 상담소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소속 회원단체들은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여성단체들은 지난 1년간의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은 한마디로 '낙제점수'라고 평가하면서, '성평등 정책의 실종', '실종된 가족정책, 시정에 내밀가진 보육정책, 인권익식 부재, 민간협력 축소', '구호뿐인 여성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 2.20 협의회 총회+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사단 디딤돌/결림돌 발표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2009년도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상담소가 단장으로 활동하는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사단은 2008년도 디딤돌과 결림돌을 발표하고 시상하였습니다.

### 상담소 바자회

상담소 지하 모임실에서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위해 성주그룹 막스앤스 펜서에서 의류 약 2000점을 기증해주십니다.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소식을 듣고 모여주신 회원님들과 동네 주민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옷이 판매되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로 호평을 받아서 활동가들도 뿌듯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네요, 바자회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니 종종 들려주세요! (주중 오후 4~6시, 전화로 사전예약 부탁드립니다^^)



<이임사>

## 대중과 함께하는 신명나고 혁신적인 반성폭력운동을 기대하며

◎ 한국성폭력상담소 3대 소장 이미경



먼저 제 인생의 한가운데를 이곳,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행운에 감사드리며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삶에서 상담소는 늘 우리사회의 성문화를 바꿔가는 신명나는 활동을 하는 곳이고 그 상담소의 식구라는 사실이 큰 긍지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창립멤버로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해오면서 우리 상담소가 저에게 주는 의미는 해가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일했던 시간이나 노력 이상으로 상담소는 늘 제게 배움과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는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지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게 한 곳입니다.

2002년 소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여러분들께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행복한 활동가로 다시 시작'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인사드렸습니다. 사실이 역할을 맡기 전에 많이 망설였어요. 더 준비된 인력으로 함께하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의 활동가로, 여성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일 못지않게 의미있는 일임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성폭력이란 개념조차 생경했던 1991년에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지원하고 우리사회의 성문화를 바꿔가고자 출발했던 우리상담소는 이제 새로운 지형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관련 법과 제도도 마련되고 인식도 바뀌어가고 있지만, 반성폭력운동의 흐름의 내용을 채워가는 구체적인 고

민과 실천이 요구되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의 개념, 상담의 전문화, 성문화를 바꿔가는 기반이 되는 조사, 연구, 교육 등의 사업을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성폭력 추방운동을 해가는 여성인권운동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가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각오로 시작했던 소장으로서 지난 6년 4개월을 돌아보면 사실 아쉬움과 부끄러운 순간이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상담소 창립멤버이고 상근활동만 12년 가까이 해온 저 자신이 외연으로는 제법 오래된 활동가로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졌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우리 상담소의 지나온 역사' 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았나 반성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목소리 높여 외쳤던 법과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그 복병으로 '제도화의 그늘' 을 만나 대항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을 일부 지원받는 대신, 과도한 정부의 '지도·감독' 을 받고, 피해생존자의 인식사항 등이 전산처리되어 중앙집적되는 '새행정시스템' 처럼 정보인

상담소는 늘 제게 배움과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는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지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게 한 곳입니다.

이제 여성운동에서의 '여성' 은  
단일화된 여성이 아니고,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인식하는  
성폭력의 의미나 대응전략도  
매우 다양합니다.

권을 침해당하는 등 NGO 활동의 정체성이 도전받고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대중과 호흡하는 활동을 해왔는가, 과연 여성들은 자유롭게 안전한 삶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자신에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반짝이는 활동가들의 혁신적이고 신명나는 아이디어들로 '생존자말하기대회' (2003~)와 '작은말하기' (2007~), '다른몸되기 프로젝트' (2004~), '춤세라피 & 욕망찾기 & 꿈찾기 프로젝트' (2007~), '여악여락 콘서트' (2004, 2008) 등 여러 실험적이고도 의미있는 활동들을 펼쳐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활동들은 생존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을 내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밤길되찾기 달빛시위' (2004~)도 이제는 매년 여름 전국적으로 함께하는 틀이 잡혀가고 있음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채팅상담, 이메일상담, 야간상담 등을 줄이는 결정과, 열린터 퇴소자들을 위한 자립지킴이공동체인 '하담' 은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타기관에 이관하는 결단 등은 지난한 논의과정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활동이 없었던 미디어센터, 교육센터, 성폭력문제연구소도 해소하고, 상담소의 몸체를 가볍게 하면서 재정자립의 3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몇 년 동안 진행되었던 미래전망을 작년에 집중적인 워크숍을 통해 기본틀을 마련한 것은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이제 여성운동에서의 '여성' 은 단일화된 여성이 아니고,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인식하는 성폭력의 의미나 대응전략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의 적극적인 사회참여현상에 대해 거부장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반격(backlash)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보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우리 상담소가 변화의 물결로 깊숙이 흘러왔던 경험과 고민의 시간들이 이러한 위기를 견뎌가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내는데 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간 상담소와 함께해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회원님, 상담원선생님, 이사님, 자문위원님, 나눔이, 지킴이, 법정지원팀, 각종 행사의 기획단, 상근활동가 등 모든 분들께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들어라, 나는 말한다' 며 아주 특별한 용기와 지혜로 치유의 여정에 계신 생존자분들과의 만남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상담소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상담소와 함께해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부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충분히 준비된, 사려깊고 추진력있는 이운상 선임소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고 마음 깊이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지금의 MB정권에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노력과 용기를 내야하는 지를 생각하면 함께하는 활동가들의 결의가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고, 이들의 열정과 의지, 혁신적인 활동으로 꾸려갈 우리 상담소의 3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기대하고 꿈꾸는 기쁨이 큼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년 동안이나 부족한 저에게 상담소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신뢰, 사랑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상담소는 늘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소중한 멋진 현장이었습니다.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의 하루하루가 참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제18차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 ◎ 참여기획팀 지선

2009년 1월 31일, 상담소의 제18차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08년 사업 및 결산보고 및 승인, 정관 변경승인, 임원 선출 및 퇴임 승인, 2009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보고 및 승인, 성폭력문제 연구소 해소, 신입 및 퇴임상근자 보고, 공로상 증정 등의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 상담소 활동을 아름답게 빛낸 공로상은 책임상담활동가 이영희, 소모임 활동을 하는 책임상담활동가 당고, 열림터 프로그램 진행자 세아, 회원 뚝, 방대옥 다음세대재단 실장이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수상했습니다. 뒤이어 저녁식사 후에 열린 소장 이취임식은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였는데요, 이미경 소장님을 기리는 영상 후, 떠나는 이미경 소장님과 취임하는 이윤상 소장님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여러 사람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그에 화답하여 두 소장이 함께 하는 노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환호하며 이 노래를 감동적으로 들었구요,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지난 상담소 활동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상담소를 기억하는 한 마음으로 소장 이·취임사를 듣고 다같이 2009년 활동구호를 외치며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님, 회원님의 지인. 가족분들, 타단체 활동가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대중과 호흡하며 신명나게 일하겠습니다.

## 2009년 상담소에는 활동가들의 들고나기가 있었습니다.



4대 소장 이윤상 / 3대 소장 이미경

우선 이미경 3대 소장이 퇴임, 이윤상 4대 소장이 취임했습니다. 또한 열림터 원장님으로 함께하신 사자가 퇴임하고, 후임으로 상담활동가로 활동해오신 오정희 선생님께서 새로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해 온 여성주의상담팀의 이산, 온라인사업팀의 아름이 상근활동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상담소를 이끌어온 활동가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짹짹!



성문화운동팀 두나

안녕하세요. 무지 높은 경쟁률을 통과하고 엄청난 오리엔테이션을 무사히 마친! 성문화 운동팀 신입활동가 두나입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여성주의상담팀 꿈이

안녕하세요 꿈이라고 합니다.. 아직 서울 생활이 많이 익숙하지 않고 힘들지만... 상담소 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열심히 읽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멋진 활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온라인사업팀 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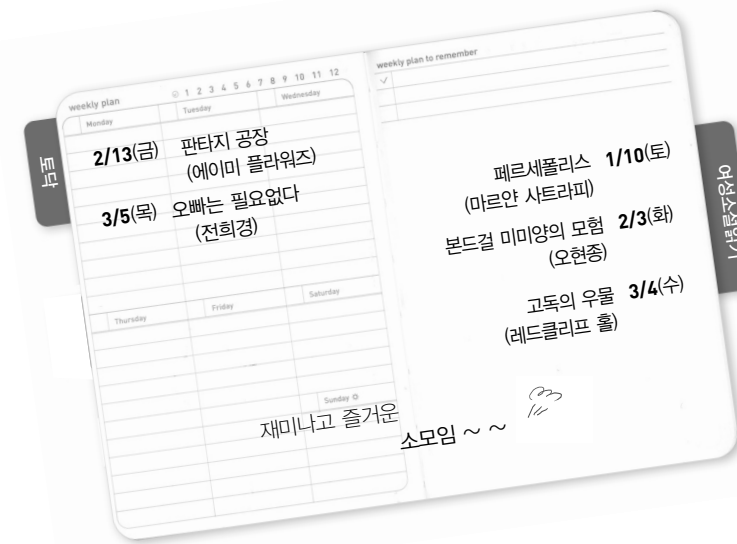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온라인사업팀에 들어온 마도입니다.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 [소모임 활동]

지금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현재 힘차게 굴러가고 있는 소모임들입니다. 회원님, 언제든 문 두드려주세요

♥ **토닥소모임** : 여성/노동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소모임입니다. 벌써 3년을 바라보는 소모임이구요, 지금까지 여성들의 경험을 좀 더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보고자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영역을 넓혀 '여성' 주제 외에 '전쟁', '생존자' 등에 대한 질적 연구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토닥스터디는 항상 회원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모임장소는 변함없이 상담소 2층이구요, 3월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여성소설읽기 모임** : 소설을 읽다보면 바로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너무나 외롭다고 생각될 때, 내 안의 고민을 털어놓고, 소중한 것을 공유하고 싶을 때, 바로 당신은 소설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주저말고 어서 찾아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즐겁고 끈끈한 모임들이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함께 하실래요?..

### [훈훈한 기부]

올해 겨울은 회원님과 후원자분들로 인해 배부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 ♥ 카페 더 솔의 이효숙 재정자문위원님께서 커피빈을 후원해주셨구요, 감사드립니다.
- ♥ 총회 때 식사준비를 도와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홍순기 이사장님, 장윤경 회원님, 김화영 회원님, 이미경활동가 어머니님 떡, 과일, 차, 축하기금 등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조인섭 변호사님은 설 기념으로 사과, 배를 보내주셨습니다.
- ♥ 우리 상담소의 후원회원님도 배정님과, 자문위원이신 김진영님께서서는 우리 상담소 활동가들이 점심을 사무실에서 지어먹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쌀, 김치, 라면, 여러 가지 반찬, 후식으로 먹을 커피, 과자, 젤리까지 '응원물품 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김성자 후원회원님도 상담소에 카레, 스펀 등 먹을거리를 제공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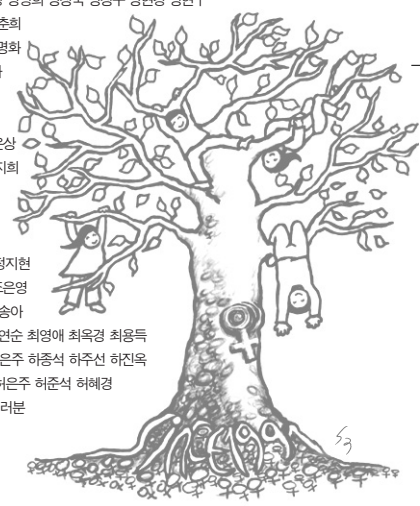
#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09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

강명지 고미라 김현실 손현희 양은주 오정희 유에리 이동현 정대성 정지원 허라금 황숙희 황지성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 강경식 강근정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영숙 강미경 강보길 강수준 강영미 강영순 강영화 강의석 강인화 강정희 강지이 강형구 강혜숙 경선미 계경문 고경애 고계영 고금미 고명식 고미경 고보경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희정 곽옥미 곽옥이 구민지 구본준 권경희 권구홍 권기욱 권소영 권오란 권요안 권윤진 권주희 권해수 금철영 김기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진 김경태 김경현 김경훈 김광진 김규욱 김금란 김금선 김나연 김다미 김대숙 김덕현 김도연 김동령 김동현 김두나 김둘순 김매정 김명륜 김명숙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민규 김민정 김민화 김보연 김보화 김봉섭 김삼화 김삼미 김상호 김상희 김선희 김생 김선경 김선미 김선민 김선진 김선희 김선주 김선희 김성자 김성천 김소명 김소연 김소은 김소연 김수 김수민 김수진 김숙임 김순옥 김순자 김승구 김애라 김애란 김양지 김언정 김엘림 김연경 김연기 김연정 김연지 김연희 김영림 김영미 김영서 김영선 김영세 김영신 김영화 김영환 김예람 김옥주 김윤란 김원식 김원정 김유진 김유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형 김은희 김응진 김의창 김이미나 김인애 김일련 김자경 김재아 김재원 김정민 김정화 김중성 김중순 김주희 김준호 김지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진선 김진영 김진호 김진희 김진희 김탁환 김태섭 김택진 김하정 김학실 김한상 김한신혜 김해경 김현경 김현정 김현란 김현숙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형수 김혜경 김혜경 김혜란 김혜련 김혜숙 김혜영 김혜영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호성 김홍숙 김화영 김효선 김효정 김희경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나길희 나영우 나태식 남갑석 남우희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노경란 노길옥 노미선 노상숙 노선이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도병욱 도상금 도정애 류란 류영호 류중현 메사 명기진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미라 문미정 문현정 문효진 박경미 박경화 박금이 박명숙 박미경 박미라 박미선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민주 박병현 박보영 박성규 박성희 박서원 박선희 박성주 박세정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소영 박소은 박수현 박순복 박승일 박아름 박영 박영주 박윤미 박윤숙 박은영 박은진 박정란 박정옥 박정은 박중선 박주연 박준규 박준연 박지영 박지현 박진숙 박지로 박정경 박정은 박현배 박현순 박현주 박현희 박혜숙 박혜영 박혜진 박효정 방상희 배경희 배새롬 배은경 배자하 배정원 배정철 백명숙 백선희 백성길 백지선 백현 번계희 변순임 변혜정 심목스님 서관일 서명선 서명호 서미원 서미현 서민자 서백영 서범원 서순진 서예희 서용원 서정에 서정표 서종석 서태자 서해인 서희석 선은옥 선희갑 설연자 성지는 손경이 손기주 손명화 손보경 손지영 손현희 송문숙 송수영 송승훈 송애람 송와람 송요신 송은주 송일빈 신경우 신경혜 신동현 신명희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에 신영미 신윤진 신은재 신은주 신자향 신정혜 신현주 신혜성 심민지 심소영 심진실 심창고 심현실 심해련 심혜진 안민 안연하 안재훈 안창혜 안철민 안초롱 안홍윤 안홍례 안홍자 안민희 양수안나 양애경 양영희 양창국 양창수 양현경 양현규 양효준 양정출 양인숙 여명숙 염명덕 오경희 오광수 오다현 오미근 오세희 오승환 오숙희 오승이 오정진 오정희 오현숙 오현주 오형동 옥민영 옥창의 우안녕 우안우 윤민경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원형실 원혜숙 유경희 유계옥 유상열 유선옥 유선원 유원희 유은주 유유진 유재영 유혜나 유혜숙 유현광 육신근 육향순 윤고은 윤영화 윤범석 윤소정 윤소희 윤수연 윤숙경 윤소희 윤애리 윤양현 윤연숙 윤영숙 윤영희 윤영미 윤자영 윤정순 윤정희 윤지원 윤지희 이경로 이경미 이경숙 이경아 이경자 이경환 이교은 이규원 이규희 이근혜 이금란 이금정 이기찬 이나영 이내희 이덕화 이명옥 이명희 이문주 이문주 이미경 이미영 이미자 이미정 이민서 이민영 이민철 이병주 이보연 이삼례 이삼근 이상미 이상연 이상은 이상진 이상호 이상록 이서영 이선규 이선영 이성수 이성실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수안 이수용 이수순 이순희 이순진 이선정 이애란 이아진 이연실 이영기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예지 이용창 이우정 이우정 이윤상 이윤진 이윤옥 이윤희 이은 이은상 이은애 이은영 이은정 이은지 이은화 이재선 이재은 이재진 이재철 이정복 이정숙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화 이정화 이종범 이진선 이지영 이지은 이지희 이진숙 이진아 이진영 이찬원 이창원 이춘미 이충주 이매희 이혜사랑 이향심 이현숙 이혜숙 이효근 이효진 이효선 이효숙 이효희 이희경 이희영 이희화 임복선 임성민 임수연 임순영 임승환 임자영 임중은 임주희 임치선 임치순 임홍실 임희운 정다혜 정미정 정순례 정영애 정영희 정윤경 정윤정 정은미 정은옥 정영미 정중순 정진 장철우 장효정 전병미 전병희 전아람 전연배 전영애 전유경 전주경 전지현 전호완 정경애 정교화 정국동 정금나 정나란 정덕기 정동범 정명중 정명영 정민이 정복현 정순경 정순옥 정순희 정안나 정여진 정영석 정영선 정옥분 정유석 정윤주 정은숙 정은영 정정희 정정희 정지현 정진욱 정희희 정해람 정현희 정혜윤 조 은 조계삼 조구선 조민우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성현 조성혜 조세영 조소연 조양복 조영선 조원복 조원숙 조은주 조은영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실 조일래 조재옥 조정은 조중신 조지혜 조현미 조현아 조혜영 주명희 주혜정 주희진 지은순 진석중 진태란 차설안 차현영 채송아 채우리 채희승언 채현숙 채희영 천정환 최경식 최광락 최광희 최광희 최기홍 최동석 최명숙 최보민 최석우 최신규 최성호 최성호 최수연 최수민 최아림 최연순 최영애 최옥경 최용득 최유진 최윤숙 최윤정 최은영 최정립 최정민 최정희 최지나 최지녀 최지영 최진아 최현우 추정희 추주형 카라 탁목희 하나 하나은 하다영 하수은 하은주 허중석 허주선 허진옥 한국이미지카미자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병규 한보경 한수현 한승희 한양희 한영규 한영은 한영채 한윤주 한재철 한희숙 한희화 한희정 허경현 허남주 허순만 허은주 허준석 허혜경 홍민희 홍민철 홍보연 홍성미 홍순기 홍윤기 홍은정 홍재진 홍진경 황상하 황성기 황순경 황정진 황지영 황지윤 SUNS 네이비 해피빈과 싸이월드타운의 기부자 여러분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 - ^

강대열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강학중 고정남 권윤진 권익승 권진구 권형구 김경현 김덕현 김명희 김명희 김상화 김선영 김옥란 김재련 김정의 김준길 김진영 김혜정 김희영 김효선 김희숙 노주희 Nicola Jones Lena Levit 명진숙 문경란 민남기 박기원 박윤숙 박윤순 박지만 배 경 배상희 배정철 변대규 변혜정 송용석 시연숙 신동현 신혜경 안백민 안현정 아기사노부 우기호 이경훈 이기철 이덕화 이동림 이명선 이명숙 이미경 이병규 이병우 이상규 이인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유미 이우정 이정숙 이해경 이해사랑 이화영 이효숙 임미화 임순영 정윤경 정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동범 정몽훈 정안나 정영택 정재정 정휘재 조선혜 조성현 조영철 조일래 조혜옥 주관수 채영수 천수민 천정환 천담미리신부인과 최보원 최영애 최정순 한국텔레크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승아 무기명기부

#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